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8년 2월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논문

# 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교육 내용 분석연구

-7차 교육과정 중점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김 정 은

# 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교육내용 분석연구

- 제 7차 교육과정 중점으로 -

An Analytic Study on the Area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n the  
Current High School Music Textbooks : Focused on the 7th  
Curriculum.

2007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 교육전공

김정은

# 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교육 내용 분석연구

지도교수 김 승 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음악교육) 학위 청구논문  
으로 제출함.

2007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정 은

# 김정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승 일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서 영 화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계 인

2007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 ABSTRACT

<b>제 1장 서론</b> .....	1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1. 연구의 방법.....	3
2. 연구의 범위.....	3
<b>제 2장 이론적 배경</b> .....	4
<b>제 1절</b>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	4
1.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특징.....	4
2. 음악과 목표와 내용.....	4
가. 음악과 목표.....	4
나. 음악과 내용 체계.....	5
(1) 이해 영역.....	5
(2) 활동 영역.....	7
3.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	8
4. 음악과 평가 .....	9
<b>제 2절</b>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악지도내용의 변화.....	10
1. 제 1차 ~ 제 6차 교육과정에서의 국악지도 내용.....	10
2.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국악 지도 내용.....	13
<b>제 3절</b> 국악 교육의 의의와 중요성.....	15
1. 국악교육의 의의.....	15
2. 국악 교육의 중요성.....	16
<b>제 3장 제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 국악내용 분석</b> .....	17
<b>제 1절</b> 8종 음악교과서의 국악 제재곡의 분석 .....	17
<b>제 2절</b> 국악 수록곡의 활동영역 비율.....	19
<b>제 3절</b> 각 제재 곡에 따른 영역별 국악내용 분석.....	20

1. 가창 영역.....	20
가. 국악 가창곡의 종류 및 이해.....	20
나. 국악 가창용 제재곡 현황.....	22
(1) 민요.....	24
(2) 시조 및 가곡.....	28
(3) 판소리 (창극)와 단가.....	29
(4) 창작노래 및 기타 악곡.....	30
2. 기악 영역.....	32
가. 국악 기악 제재곡의 내용.....	32
(1) 악기에 의한 분류.....	33
3. 창작 영역.....	35
가. 국악 창작 영역의 내용.....	36
4. 감상 영역.....	37
가. 국악 감상 영역의 내용.....	38
<b>제 4절 문제점 및 개선 방안.....</b>	<b>45</b>
1. 문제점.....	45
가. 가창 영역.....	45
나. 기악 영역.....	45
다. 창작 영역.....	46
라. 감상 영역.....	46
2. 개선방안.....	47
가. 가창 영역.....	47
나. 기악 영역.....	47
다. 창작 영역.....	48
라. 감상 영역.....	48
<b>제 4장 결론 및 제언.....</b>	<b>48</b>
참고문헌 .....	50

## 표 목 차

<표 1> 제 7차 고등학교 교육인적자원부 검정 8종 음악 교과서.....	3
<표 2>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	5
<표 3> 고등학교 음악과 내용 체계표 - 이해 영역.....	6
<표 4> 고등학교 음악과 내용 체계표 -활동영역.....	7
<표 5> 제 6차 교육과정까지의 고등학교 국악 지도 내용.....	11
<표 6> 제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악 지도 내용.....	14
<표 7> 8종 교과서에 나타난 체재 곡 분포.....	18
<표 8> 고등학교 8종 교과서 국악 수록곡 활동영역 비율 .....	19
<표 9> 8종 음악교과서의 국악 가창곡 분류 .....	23
<표 10> 가창곡 장르별 분류.....	24
<표 11> 민요의 지역별 분류.....	25
<표 12> 민요의 토리별 분류.....	27
<표 13> 가창영역 - 시조 및 가곡 수록 현황.....	29
<표 14> 가창영역 -판소리와 단가 수록 현황.....	30
<표 15> 가창영역 - 창작노래 및 기타 악곡 수록 현황.....	31
<표 16> 기악 영역 내용 분류.....	33
<표 17> 기악영역 - 악기별 분류.....	34
<표 18> 창작 영역 내용 분류.....	36
<표 19> 감상영역 내용 분류.....	39
<표 20> 감상영역 장르별 내용 분류 - 기악곡.....	40
<표 21> 감상영역 장르별 내용분류 - 성악곡, 창작곡.....	41



## ABSTRACT

# **An Analytic Study on the Area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n the Current High School Music Textbooks**

**- Focused on the 7th curriculum -**

Kim, Jeong - Eun

Advisor : Prof. Kim, Seung - Il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thesis is a research on music textbooks in high school it is examined the characteristic of the 7th Music Education curriculum and the contents about traditional music. Especially, this study aims that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our traditional classical music and examine whether the eight kinds of present high school music textbook in the 7th curriculum are up to the character, purpose and contents of the educational curriculum, and that after we find out the problems and analyze the activities of our traditional classical music into four categories, we can search for the improved ideas about the music textbook using this study appropriately and make the proper lessons as we wished for our traditional classical music.

In the 7th curriculum, the importance of traditional classical music education has been stressed, and music textbook is a important

learning material being well weaved in contents and activities so that a traditional classical music education can be effectively made just as the present curriculum intend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looked into the ratio of traditional classical music section in the textbooks through the classification by classical music subject matter tunes of 8 kinds of present high school music textbooks, and then compared and analyzed more closely the contents by activities fields - singing, instrumental music, creative work and appreciation.

First, the result shows that the ratio of national classical music subject tunes in the textbooks was various by textbooks from 44%, the highest, to 22%, the lowest, significantly less than that of Western music.

Second, from the analysis of classification by area, I could found that the field of singing and appreciation for the music was highly active in the record of current status of traditional classical music activity, that is, there was too much emphasis on the certain music area presenting that the folk song gave undue value to the singing area and the instrumental music was too much isolated into Danso (short bamboo flute) and Janggu (double-headed drum pinched in at the middle). In creative activity area, classical music contents were insufficient compared with other areas, and only one of 8 kinds' textbooks has contained 'an impromptu making', which shows going wrong with present curriculum stressing improvised performance. Appreciation area was much short of the number of common pieces of music needed for traditional classical music learning, and there was no consistency in the containing of appreciation tunes every textbook.

Further, the problems remain in the curriculum, such as the difficulties of integrating the lessons due to the irrelevance between categories of the lessons and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inside the school such as posting the musical instruments.

To improve present problems, it is suggested that the textbook should be produced for correlating different areas each other, the clear standardization should be described for the required common musical composition in the textbook and more various musical composition and rich contents should be established for student having various musical experiences.

## 제 1장 서론

###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대로부터 음악은 인류와 함께 하면서 인간들의 마음과 생활의 분위기를 채워 주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 알맞은 노래가 있듯이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 민족성에 부합되는 음악이 있다. 우리의 생활 속에는 항상 노래와 춤이 끊이지 않았고 지역에 따라 특수한 향토 성을 지닌 음악이 있어 왔다. 즉 국악이 있어 그 지역 사람들의 흥겨움과 한을 달래주었고 그 속에서 민족적 사상이 자랐으며, 생활이 여물고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 2003년 판소리가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종묘제례악에 이은 두 번째 경사인 이 소식으로 대내적으로는 우리 전통문화와 예술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되었고, 대외적으로는 문화국가의 이미지 제고와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그동안 국악의 전승과 발전을 위한 국악인들의 열정과 노력은 물론, 국악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투자의 성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기관인 음성서의 설립으로 그 존재가 확인된 우리나라의 국악 교육은 일제강점기의 전문국악교육의 전통을 바탕으로 해방 이후 전문 국악교육<sup>1)</sup>과 일반국악교육<sup>2)</sup>으로 계승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7차에 걸친 교육과정의 개

---

1) 광복이후 전문 국악인을 배출하기 위한 중등교육기관의 필요에 따라 1955년 국립국악원부설국악사양소와 1960년 개교한 서울 국악예술고등학교를 필두로 현재까지 약 20 여개 중. 고등학교에서 전문국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54년 덕성여자대학교에 우리나라 최초로 국악과가 설치되었고, 이후 1959년 음악대학 내에 국악과 과정을 설치한 서울 대학교를 시작으로 1970년대 한양대와 이화여대, 추계예술대를 거쳐 현재 23개 대학에 국악과가 설치되었고, 졸업생만도 약7,000여명에 달한다. 1963년 서울대학교에 국악전공 석사학위 과정이 처음으로 개설되었다. 1959년 설치된 학부 학생들의 졸업과 연계하여 설치된 대학원 과정 개설은 학문 연구의 인적자원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다른 대학에서의 대학원 개설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마침내 1980년 정선문화 연구원에서 국악 학 관련 박사과정이 개설되었고, 이후 1989년 서울 대학교와 한양대, 이화여대에서도 한국 음악학과 음악인류학 전공 등의 박사과정을 설치하여 신진학자들의 안정적인 학문연구에 도움을 주었다.

이상규, “20세기 이후 국악교육의 전통과 계승”, 『한국음악연구』, 제34집 (서울 : 한국국악회, 2003), 77-81쪽.

2) 근대적 의미의 일반 국악 교육은 1945년 광복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1945년 9월 미 군정청 문교부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부터 6학년까지 음악교과는 당시 음악교육에 대한 정책이나 내용·방법 등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복 이전에 사용한 교과서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지만 국악을 자료로 선택했다는

편에 따라 국악교육의 비중은 증대되었으며, 그에 따라 학교에서의 국악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음악 교과서의 50% 이상이 국악내용이고 일반 사람들이 대중매체나 인터넷으로 우리 음악을 접해보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서양음악 중심의 클래식이나 대중가요만을 중요시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음악은 그다지 빛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각 나라마다 전통 음악의 필요성이나 특징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옛것에 대한 이해와 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일이다.

가장 감수성이 좋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학교 음악시간에 교과서를 통해 우리 음악을 접하게 하는 것은 국적 있는 자국 문화의 이해를 통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 중 감상활동은 음악을 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활동인 동시에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다. 다양한 소리를 듣고, 탐구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통하여 음악적 감수성을 기르고 음악의 표현적 요소와 음 현상에 대한 감지력과 민감한 반응력을 기른다.

음악과의 제 7차 교육과정 중심내용은, 포괄적이고 연계성 있는 음악교육, 우리 음악 문화 창달을 위한 국악교육, 활동중심의 음악교육, 문제 해결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국악교육, 타당성 있는 음악과 평가 등이 있으며, 특히 현 교육과정에서는 21세기의 정보화, 세계화, 다양화된 세계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한국의 음악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여 우리 음악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우리의 전통문화가 계속 발전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국악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8종 음악 교과서 중 국악영역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교육현장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하기위한 바람직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sup>3)</sup>

##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절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성진, “국악교육 40년의 회고와 전망”, 『국악교육 40년의 회고와 전망(자료집)』 (서울 : 국립국악고등학교, 1995)

3) 이성진, “국악교육 40년의 회고와 전망”, 『국악교육 40년의 회고와 전망 (자료집)』 (서울 : 국립국악고등학교, 1995), 1쪽

## 1. 연구의 방법

위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 째,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체계, 그리고 국악교육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겠다. 둘째, 국악교육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교과서에서 국악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 볼 것이다. 것이다.

셋 째, 고등학교 8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제재 곡들을 7차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중 가창 · 기악 · 창작 · 감상의 활동 영역 중심으로 분석하여 각 교과서에 나타난 국악내용을 비교, 분석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방법을 통하여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국악영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

##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검정한 8종의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이다. 이 연구에 사용된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편된 고등학교 8종의 음악 교과서와 분류 기호는 <표 1>로 다음과 같다.

<표 1> 제 7차 고등학교 교육인적자원부 검정 8종 음악 교과서4)

순서	저자명	출판사명
가	이홍수, 황병훈, 이성훈, 감향정	(주) 두산
나	정영택, 허화병	(주) 교학사
다	고춘선, 홍정건	세광음악출판사
라	서한범, 주대창, 홍수진, 신주연	도서출판 태성
마	김성수, 이정재, 김영목	대한 교과서 (주)

4) 위 교과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 입각한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이다. <표 1> 이후로 교과서 표기의 편의를 위해 ‘가~아’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바	윤경미, 문 진	현대음악출판사
사	백병동, 최 현, 문경해, 홍기순, 김은하	(주) 천재교육
아	이강을, 주광식, 김금수, 황 선	박영사

## 제 2장 이론적 배경

### 제 1절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

#### 1.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특징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다양한 악곡을 경험하여 음악개념을 이해하고,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음악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표현력과 사고력을 길러 음악에 대한 심미적 안목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기르는 교과이다.

포괄적이고, 연계성을 가지는 음악과 교육과정으로 모든 학생들이 1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음악이 필수과목이 되고, 11~12학년 학생은 선택과목이 되어, 교과목의 내용과 수준은 기존의 음악교과와 연관 지어 계열 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고, 학습량을 최적화하여 선정하고 그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하도록 하였으며, 음악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와 활동으로 나누었다. 두 영역(이해영역, 활동영역)의 통합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이끌어 내고, 학습자의 관심, 흥미, 필요, 요구와 시대적·문화적 필요를 학교에서 뿐만이 아닌, ‘음악의 생활화’를 추구하고 있다.

#### 2. 음악과 목표와 내용

##### 가. 음악과 목표

음악과 목표는 10년간의 국민 공통 교육기간을 통하여 다양한 악곡과 음악활동을 통한 음악개념의 이해와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풍부한 음악적 감수성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길러 음악을 생활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학생이 성취하여야할 성취 능력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표 2> 와 같다.

< 표 2>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sup>5)</sup>

총괄 목표	하위 목표
* 다양한 악곡과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음악적 정서를 풍부하게 한다.	* 음악의 구성 요소를 이해한다. *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른다. *음악의 역할 과 가치를 이해하여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른다.

하위목표 중 첫째, ‘음악의 구성 요소를 이해한다.’ 는 음악의 기본 습득을 위한 인지적 영역의 목표에 관한 것이다. 음악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악곡을 구성하는 요소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위목표 중 둘째,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른다.’ 는 표현 능력 및 예민한 청각능력을 기르는 심동적 영역의 목표에 관한 것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음악성을 계발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게 된다.

하위목표 중 셋째, ‘음악의 역할 과 가치를 이해하여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음악에 대한 애호심 및 가치관 형성을 이끄는 정의적 영역의 목표에 관한 것이다. 음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고 나아가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길러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며 사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나. 음악과 내용 체계

고등학교 음악과의 내용체계는 크게 이해 영역과 활동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표 3>, <표 4>와 같다.

### (1) 이해 영역

5)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⑨ 음악, 서울 : 대한 교과서, 2001,p.18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악곡의 구성요소를 리듬, 가락, 화음,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나, 음악의 짜임새(Texture)라는 중요한 개념의 제시가 불분명하였기에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화음’ 대신에 ‘화성’으로 대치하고, 이 개념에서 화음과 짜임새를 같이 넣게 되었다. 또한 전통 음악의 중요한 요소인 ‘장단의 형태’, ‘시김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각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음악 요소들을 어떻게 음악활동과 연관을 지어 가르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화 하여 제시하였다.

< 표 3> 고등학교 음악과 내용 체계표 - 이해 영역 6)

구분	내용	
이 해	리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유형의 박자</li> <li>* 여러 가지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li> <li>* 여러 가지 박자와 장단의 리듬꼴 발전과 변화</li> </ul>
	가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계에 따른 가락의 구성과 여러 형태</li> <li>* 여러 가지 음계</li> <li>* 민요 음계</li> <li>* 시김새</li> <li>* 꾸밈음</li> </ul>
	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부 조직 (화성, 다성 음악)</li> <li>* 여러 조의 3화음, 7화음</li> <li>* 화음 진행</li> </ul>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락의 발전과 변화</li> <li>* 다악장 형식</li> <li>* 연음 형식</li> <li>*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형식</li> <li>* 잡가/다성 음악 등의 성악곡</li> <li>* 실내 악곡</li> </ul>
	셈여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곡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셈여림의 변화</li> </ul>
	빠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곡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빠르기의 변화</li> </ul>
	음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음원의 모양, 재료에 의한 소리 변화</li> <li>* 여러 가지 창법에 따른 목소리와 음질의 변화</li> <li>* 민속 악기</li> <li>* 여러가지 주법에 따른 악기 소리와 음질의 변화</li> <li>* 연주 형태에 따른 소리의 조화 (기악 앙상블)</li> </ul>

6)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⑨ 음악, 서울 : 대한 교과서, 2001, pp.23~27

(2) 활동 영역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표현과 감상영역을 나누어, 감상활동을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제시하였으나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영역을 음악활동이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 제시하였다. 감상활동은 학생이 음악을 집중하여 들으며 음악개념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적인 활동이다. 학생들은 음악교과의 제재곡, 다양한 악곡, 다른 학생들의 노래나 연주, 자신이 만든 곡 등을 들으면서 많은 음악적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듯 음악을 듣는 행위는 음악 개념을 이해하고 음악활동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되기 위해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감상을 독립된 영역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하여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의 주요 4가지 활동을 하나의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표 4> 고등학교 음악과 내용 체계표 -활동영역7)

구분	내용	
활동	가 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른자세, 호흡, 정확한 발음, 풍부한 발성으로 부르기</li> <li>* 듣고 부르기</li> <li>*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여 보고 부르기</li> <li>*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창의적으로 부르기</li> <li>*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외워 부르기</li> <li>*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이해하여 합창 지휘하기</li> <li>*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창의적으로 부르기</li> <li>* 노래를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li> </ul>
	기 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른 자세, 주법, 좋은 음색으로 연주하기</li> <li>*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여 보고 연주하기</li> <li>* 악곡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연주하기</li> <li>*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외워 연주하기</li> <li>*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이해하여 합주 지휘하기</li> <li>* 여러 유형으로 반주하기</li> <li>*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창의적으로 연주하기</li> <li>* 연주를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li> </ul>

7)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⑨ 음악, 서울 : 대한 교과서, 2001, pp.22

활 동	창 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곡을 즉흥적으로 표현하기</li> <li>* 여러 유형으로 변주하기</li> <li>* 다양한 형식의 곡을 만들어 적기</li> <li>*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기</li> <li>* 만든 곡을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li> </ul>
	감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곡의 성격과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기</li> <li>*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형식을 이해하여 듣기</li> <li>* 악곡의 특성과 분위기에 어울리게 창의적으로 신체 표현하기</li> <li>* 다양한 악기 소리와 목소리의 음질과 그 조화를 이해하기</li> <li>* 다양한 악곡의 연주 형태와 특징과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기</li> <li>*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기</li> <li>*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기</li> <li>* 음악을 듣고 평가하기</li> <li>* 바른 감상 태도 가지기</li> </ul>

### 3.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

제 7차 교육과정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이다. 이것은 교과서나 교사 위주의 교수·학습 방법을 학생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학생의 요구와 수준은 지역이나 학년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요구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과 연구는 필수적이다. 또한, 교사가 중심이 되는 강의식 전체학습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 물론 현재 부족한 시설에서의 개별학습이나 소집단학습의 진행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지만, 필요한 학습 기자재의 확충이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개발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보편화 되어야 한다.

음악과 학습은 수업을 통하여 실제 학생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정서를 가지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음악은 다른 교과에 비해 심동적인 측면이 특히 강조되고 큰 역할을 차지하는데 음악개념이나 기능습득보다는 ‘음악하기’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스스로 우러나오는 능동적인 학습 자세를 갖출 때 가능한 일이다. 음악 수업이 즐겁고 자발적인 참여의 바탕위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의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은 갈수록 그 비중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학습의 효율성이나 학생들의 선호도 측면에서도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전통음악이 생활 속에서 자주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하고 실제적인 지도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의 자기 연수와 지역사회에 전통음악과 관련된 문화행사의 참여나 전문 인력자원의 활용이 선행되어야 하고, 학기초의 교수·학습 계획을 세울 때 고려되어야 한다.

#### 4. 음악과 평가

음악과 평가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는 수업의 필수 영역이다. 평가과정 그 자체가 학습 경험이며, 이를 학습과정으로부터 격리하지 말아야 한다.

음악과에서 학생의 성취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도구 및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음악과의 경우, 음악이 갖는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도구와 방법은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음악 평가는 실음을 통한 지필 검사에 제한하지 말고, '수행평가'를 통한 평가도 하여야 한다. 학생의 학습결과 뿐만 아니라, 과업 수행의 과정과 그 사고 과정까지도 포괄하는 '수행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학생의 지식이나 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학생이 아는 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볼 수 있으며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에 대한 과정의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평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학교의 음악 수업에서 음악적 이해는 수업과정을 통하여 발전되며, 교사는 그 과정을 계속 지켜봄으로써 학생들의 성장을 볼 수 있다. 평가의 목적은 개인을 위한 수업을 증진시키기 위함인데, 음악과 수행 평가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개인의 변화, 발전 과정을 전체적이면서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1) 이해, 가능, 태도 영역의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평가

- (2) 내용체계에 제시되어있는 성취 기준을 준거로 한 평가
- (3) 신뢰성 있고 타당한 평가방법 및 평가 결과 제시
- (4) 학습과정을 진단하고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 방법의 활용 (예, 수행평가)
- (5) 수업의 한 영역으로서의 학습개선을 위한 평가의 활용

평가의 결과는 학습지도 계획과 지도 방법 개선에 활용하도록 한다. 평가는 교수·학습의 마지막 과정이면서 동시에 시작하는 과정이기도 하므로, 평가 자료가 다음 단계의 교수·학습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 **제 2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악지도내용의 변화**

### **1. 제 1차 ~ 제 6차 교육과정에서의 국악지도 내용**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악 지도내용의 변화에 의하면 제 1차 교육과정에서는 전통 음악의 기본 개념 정리가 미흡했다. 제 2차에서 30% 이상 민요 부르기, 제 3차에서는 민요를 포함한 우리나라 노래의 비중을 50%이상 늘여 형식상으로 전통음악의 틀이 형성되었다. 제 4차 교육과정의 지도상 유의점에 전통 음악의 장단 활용이 명시되었으며, 제 5차 에서는 전통음악에 쓰이는 조, 가락, 합주곡 체험하기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형태가 제시되었다.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세마치, 굿거리, 자진모리장단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전통 음악의 성악곡, 기악곡들의 연주 형태 및 전문 용어가 구체적으로 사용 되었고 정간보를 보고 표현하기 등의 학습 형태가 제시되어 전통 음악이 점차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 1차부터 제 6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악 지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 표 5 > 제 6차 교육과정까지의 고등학교 국악 지도 내용 8)

교육과정	지도 내용
제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건정한 민요와 악기 및 음악가에 대한 지식을 가지도록 하기.</li> <li>* 민속조로 된 곡과 우리나라 작품을 적어도 5곡 이상 쓰기.</li> <li>* 우리나라의 건전한 민요를 감상하기.</li> <li>* 우리나라 민족 악기, 국악기, 아악기의 특징과 그 음악을 감상하기.</li> <li>* 우리나라의 건전한 민요와 외국 민요도 감상하기.</li> <li>* 민속 음계도 이해하도록 한다.</li> </ul>
제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음악을 감상하는 능력과 스스로 주의 깊게 듣는 태도를 더욱 향상시키기.</li> <li>*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가곡과 민요 부르기 (전 가창 교재의 30%이상) 우리나라의 음계로 이루어진 가곡 부르기</li> <li>* 한국 풍의 음악과 서양음악의 비교 감상 및 그 구성 요소의 차이점에 대한 개념 파악</li> <li>* 우리나라의 여러 나라의 고상하고 유명한 음악(민요포함)의 감상 및 이해</li> <li>* 장구, 북, 징, 팽과리, 편경, 가야금, 양금, 통소, 태평소 등의 국악기에 대한 이해 및 그 음악의 감상</li> <li>* 거문고, 해금, 단소, 피리, 대금, 아쟁, 박, 생황 등의 국악기에 대한 이해 및 그 음악의 감상</li> <li>* 민요풍 및 기악곡 풍의 가락 짓기</li> <li>* 훈, 축, 어, 당적, 나팔, 소금, 중금, 중금 및 다른 여러 국악기에 대한 이해 및 감상</li> </ul>

8)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⑨ 음악, 서울 : 대한 교과서, 2001

제 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의 노래 부르기 ( 민요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노래를 50%이상 )</li> <li>* 민족적인 가락과 건설적인 가사의 노래짓기</li> <li>*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리듬악기를 세련되게 연주하기.</li> <li>*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리듬악기를 음악적으로 연주하기</li> <li>* 우리나라 음악과 서양 악기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비교 감상하기</li> <li>* 우리나라 음악의 독특한 형식과 주법 및 연주형태를 체감, 이해하기</li> <li>* 민요, 구군악, 농악, 가야금 산조, 국악 합주 등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감상하기</li> </ul>
제 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음악을 각 영역의 학습 활동 속에서 충분히 다룬다.</li> <li>* 리듬 학습의 소재로서 전통 음악의 장단을 활용하는 일</li> <li>* 가창과 기악 학습에서 민요를 소재로 삼는 일</li> <li>* 모든 학습 활동 속에서 전통음악의 소재를 다루도록 하기</li> </ul>
제 5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에 의한 가락, 민속풍의 가락 및 기악곡 풍의 가락을 지어 적기</li> <li>* 우리나라 전통 음악에 쓰이는 조 등으로 이루어진 악곡을 표현하기</li> <li>* 민요, 구 군악, 농악, 산조, 합주 판소리 등 우리나라의 전통음악 감상하기</li> <li>* 전통음악에 쓰이는 가락 합주곡을 체험하기</li> </ul>

제 6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 음악의 장식음 이해하기</li> <li>* 12율명 이해하기</li> <li>* 세마치, 굿거리, 자진모리장단 치기</li> <li>* 여러 장단 치기</li> <li>* 가사에 의한 가락 및 전통 음악의 가락 지어 적기</li> <li>* 전통 가곡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성악곡을 감상하기</li> <li>* 단가, 잡가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성악곡을 감상하기</li> <li>* 판소리, 범패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기악곡을 감상하기</li> <li>* 대취타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기악곡을 감상하기</li> <li>* 산조, 변주곡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기악곡을 감상하기</li> <li>* 연례악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기악곡을 감상하기</li> <li>* 전통 음악의 특징에 대하여 관심 가지기</li> <li>* 기악 학습에서는 팽과리, 장구, 북, 징 등의 타악기와 단소, 리코더, 건반악기 등의 가락 악기를 중심으로 학생의 희망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 적절한 악기를 선택하여 지도하기</li> <li>* 전통 음악의 학습은 이해, 표현, 감상의 전 영역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민요는 시김새를 넣어 불러 보게 하며, 정간보를 보고 표현해 보도록 한다.</li> </ul>
------	----------------------------------------------------------------------------------------------------------------------------------------------------------------------------------------------------------------------------------------------------------------------------------------------------------------------------------------------------------------------------------------------------------------------------------------------------------------------------------------------------------------------------------------------------------------------------------------------------------------------------------------------------------------------------------

## 2.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국악 지도 내용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장단 변형하기, 연주형태에 따른 소리의 조화, 다양한 국악기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감상곡도 현대에 맞는 창작곡을 포함하였으며, 제 6차에서 다루지 않았던 단가, 시조, 가곡 등을 가창곡으로 늘여 다양하게 국악을 접해볼 기회를 가지게 하였다.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인 10개 학년을 하나로 묶어 연계성을 가지도록 구성하였으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관성을 고려하여 계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11~12학년에서는 학생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음악과목인 “음악과 생활”을 선택하여 다양한 능력을 발전시키고 “음악” 교과와 학습내용과 연계하여 보다 심화된 내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내용 구성에 있어서 학습량을 최적화하여 선정하고 그 수준과 범위를 적정



화 하도록 하였다. 우리 음악 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악교육, 학습자의 관심, 필요, 요구와 시대적·문화적 상황을 조화롭게 반영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음악 교육, 정보화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의 개발 등이 강조되고 있다. 각 학생이 일정한 기준에 얼마나 도달하는지 개인차를 고려한 음악과 평가는 수업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학습 과정으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사의 음악 교육관, 학생의 음악적 능력과 수준, 지역사회나 학교의 요구 등에 따라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재구성 및 운영이 가능 하도록 하고 있어 교사의 재량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다.

다음에 오는 <표 6> 은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국악 지도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표 6 > 제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악 지도 내용<sup>9)</sup>

교육과정	지도 내용
제 7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가지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 익히기</li> <li>* 여러 가지 박자와 장단의 리듬 꼴 치기</li> <li>* 우리나라 가곡/시조, 전통 가곡, 단가 등의 성악곡 감상하기</li> <li>* 협주곡, 연례 악 등의 기악곡, 산조/ 다 악장 형식 등의 기악곡 감상하기</li> <li>* 연주 형태에 따른 소리의 조화 비교하기</li> <li>* 민속 악기 지도하기</li> <li>* 민요 음계/ 시김새 익히기</li> <li>*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과 악곡 형식을 이해하며 듣기</li> <li>* 우리나라 가곡, 시조 등 성악곡과 협주곡, 연례악 등의 기악곡 듣기</li> <li>* 전통 가곡, 단가 등의 성악곡과 산조 형식의 기악곡을 듣기.</li> </ul>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음악과 국악 학습요소를 살펴볼 수 있다.

음악과 내용체계의 방향에서 볼 때 우리의 음악 문화 창달에 기여 할 수 있는

9)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⑨ 음악, 서울 : 대한 교과서 2001

포괄적인 음악능력을 기르기 위한 국악내용을 선정하여 이해와 활동영역으로 나누었으며 활동영역을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영역으로 세분화 하고 있다. 10)

이 연구에서는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기에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영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창 영역은 여러 나라의 시대별, 지역별 등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음악성을 발전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 적성 등에 따라 음악을 선택하여 효과적인 활동이 되도록 하고 있다.

기악 영역은 초·중학교를 거치면서 습득된 기초적인 악기의 이해와 주법, 독보력을 고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재량에 따라 연주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악기들의 다양한 편성을 통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창작영역에서는 리듬이나 가락의 음악요소에 의한 것보다는 완성도 높은 음악을 만들어 즉흥적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상영역에서는 전통악기와 목소리의 조화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악기 구별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실내악 등의 연주형태와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의 음악활동에서는 초·중·고를 한데 묶어 같은 목표를 제시하여 일관성 있는 교육을 강조하는 한편, 학년 수준에 맞는 적절한 내용과 활동을 선정하여 우리의 음악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음악적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국악내용을 선정하여 상세 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제 3절 국악 교육의 의의와 중요성

#### 1. 국악교육의 의의

세계의 모든 음악은 어느 것이든 아름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국가마다 역사가 다르고 언어와 문화 풍습이 달라서 나라마다 음악도 다 다르게 마련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전통문화를 창조해왔으며 단일 언어를 사용해 온 언어의 어법을 바탕으로 하여 그 나라의 음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문화민족의 긍지를 지닌 나라이다.

민족의 주체성 확립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은 민족 문화 유산에 기대할 수 밖에

---

10)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⑨ 음악, 서울 : 대한 교과서 2001, p. 22

없고 학교 교육이 조상의 문화유산을 계승하여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때 국악교육은 민족성확립을 위하여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국악은 민족적 차원이거나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 큰 과업이며 민족적인 주체성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요체이다. 국악은 우리들의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하며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우리의 음악문화인 국악을 보다 체계화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학생들에게 남의 나라, 남의 음악, 남의 음률을 기초로 진행되는 음악 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교육은 소위 서양인 만들기에 급급하였다. 실제로 해방 후 50년 동안의 음악교육은 초·중·고등학교를 가리지 않고 모두 서양음악을 위주로 하고 있었다. 문제는 학교의 음악교육에서 한국 민족문화에 대한 자각을 외면한 채 해방 후 50년간의 음악교육에 대한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에 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외래문화 편향적인 음악풍토 속에서 한국의 음악전통은 몇 겹으로 쌓인 외래음악의 지층을 뚫고 다시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음악교육이 단순히 음악의 기교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하여 건전한 정서를 길러주고 가정과 이웃,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찌서 자신이 속해 있는 자기민족의 음악을 모르는 채 남의 민족 음악만을 알게 하여야 하는지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교육자의 성장과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속에 명문화시켜 그 교육과정에 따라 적절한 교육교재가 만들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전통음악이 새로운 형태의 민족음악으로 탈바꿈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족음악으로 승화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동인(動因)은 학교의 음악교육이 맡아서 해주어야 한다.<sup>11)</sup>

## 2. 국악 교육의 중요성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왜 국악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1) 이성진, 한국의 음악교육을 진단한다, 서울 : 도서 출판 풍남, 1991, pp.9~15

첫째, 문화교육의 일환으로 국악을 가르쳐야 한다. 실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내용은 전통적인 우리 것과 외래적인 서양 것이 섞여 있는데 드러내고자 하고 명분 있게 생각하는 것은 대개 서양적인 것이다. 서양 것을 배우고 서양 것을 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서양 것과 함께 우리 것도 알고 문화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지금의 상태는 너무 편향적이어서 문제가 많으므로 보다 전체적으로 문화체험을 하게 해야 겠고 그러자면 지금 소외되어 있는 전통문화의 교육량을 늘려야 되겠다는 말이다. 음악은 문화의 한 부분이므로 전통음악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양문화와 다른 전통문화의 훌륭함을 알고 문화적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 자주적 문화민족의 긍지를 갖게 했으면 하는 것이다.

둘째, 음악의 모국어론을 가르치기 위하여 국악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음악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그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와 밀접하게 관계있는 음악의 모국어론을 가르치기 위하여서는 우리나라 민요를 비롯한 전통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우리 음악의 모국어론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비로소 한국음악의 정체성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통음악을 통한 우리 음악의 모국어 교육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국악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아의식, 자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여러 가지 문화에 둘러싸여 좋은 것을 선별해 내는 안목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통문화교육에 충실히 함으로써 학생들이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를 보다 소중히 여기고 계승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세계문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제 3장 제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 국악내용 분석**

#### **제 1절 8종 음악교과서의 국악 제재곡의 분석**

우리나라의 현 교육과정은 단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음악학습을 위한 교육 자료는 많이 미흡한 상태이며, 특히 음악교과서에서의 국악 내용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에서 국악

이 차지하는 비중을 국악 제재곡을 분석하면 <표 7>과 같다.

< 표 7 > 8종 교과서에 나타난 제재 곡 분포

출판사	곡 분류	고등학교 음악	
		곡 수	%
가	국 악	8	35
	한국 가곡	8	35
	외국 곡	7	30
	합 계	23	100
나	국 악	13	35
	한국 가곡	4	11
	외국 곡	20	54
	합 계	37	100
다	국 악	11	22
	한국 가곡	14	28
	외국 곡	25	50
	합 계	50	100
라	국 악	10	34
	한국 가곡	8	28
	외국 곡	11	38
	합 계	29	100
마	국 악	12	44
	한국 가곡	8	30
	외국 곡	7	26
	합 계	27	100
바	국 악	11	42
	한국 가곡	3	12
	외국 곡	12	46
	합 계	26	100
사	국 악	9	28
	한국 가곡	5	16
	외국 곡	18	56
	합 계	32	100
아	국 악	8	28
	한국 가곡	9	31
	외국 곡	12	41
	합 계	29	100

위의 <표 7> 과 같이 전체 제재곡 중 국악 제재곡을 각 교과서별로 분석해 보면, ‘가’ 교과서는 전체 23곡 중 8곡, ‘나’ 교과서는 전체 37곡 중 13곡, ‘다’ 교과서는 전체 50곡 중 11곡, ‘라’ 교과서는 전체 29곡 중 10곡, ‘마’ 교과서는 전체 27곡 중 12곡, ‘바’ 교과서는 전체 26곡 중 11곡, ‘사’ 교과서는 전체 32곡 중 9곡, ‘아’ 교과서는 전체 29곡 중 8곡을 수록하고 있다.

이처럼 국악 제재곡의 비율이 44%로 가장 높은 ‘마’ 교과서에 비해 국악 제재곡의 비율이 22%로 가장 낮은 ‘다’ 교과서처럼 8종 교과서 마다 제재곡의 비율을 달리 하고 있고, 8종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제재곡을 한국 가곡과 외국곡을 서양악곡으로 묶어 분류했을 때, 국악 제재곡의 수가 현재의 교육과정의 내용을 따르기에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 2절 국악 수록곡의 활동영역 비율

고등학교 8종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 곡을 가창, 기악, 창작, 감상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표 8>에서처럼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감상영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 사, 아 교과서에서는 가창영역이 높게 나타나 있다. 이 외에 기악, 창작 영역 순으로 곡이 수록되어 있다.

<표 8> 고등학교 8종 교과서 국악 수록곡 활동영역 비율

영역 순서	가창영역		기악영역		창작영역		감상영역		전체수 록 수
	곡 수	비율 (%)	곡 수	비율 (%)	곡 수	비율 (%)	곡 수	비율 (%)	
가	10	30.3	4	12.12	1	3.03	18	54.55	33
나	13	25	6	11.54	3	5.77	30	57.69	52
다	10	32.26	5	16.13	1	3.23	15	48.39	31
라	10	43.48	2	8.7	3	13.04	8	34.78	23
마	19	46.34	11	26.83	2	4.88	11	26.83	43

바	21	35.59	6	10.17	3	5.08	29	49.15	59
사	14	35	8	20	4	10	14	35	40
아	12	52.17	2	8.7	1	4.35	8	34.78	23

### 제 3절 각 제재 곡에 따른 영역별 국악내용 분석

이 논문은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대한 연구로서, 200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 7차 고등학교 음악 교육과정의 특징과 전통음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 1. 가창 영역

가창 영역은 사람들의 음악활동 중 가장 직접적이고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음악적 경험은 노래를 부르고 배우는 것에서 시작하여 점점 음악적 능력이 향상되며, 학생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악기로 사용하여 음악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가창은 가장 수월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노래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미적 체험을 하고, 음악개념을 형성하여 자신의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음악 활동인 것이다.<sup>12)</sup>

#### 가. 국악 가창곡의 종류 및 이해

전통음악 교육에서도 가창곡의 내용으로는 가곡(歌曲), 가사(歌詞), 시조(時調), 판소리, 단가(短歌), 병창(竝唱), 잡가(雜歌), 민요(民謠), 범패(梵唄), 무가(巫歌) 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교과서의 가창 영역을 분석하기에 앞서 전통 성악곡에 대해 먼저 알아보려고 한다.

국악 가창곡은 전통음악 중에서 가사가 있는 악곡을 말하며, 가악(歌樂)이라는 용어로 언급되기도 한다.

12)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⑨음악, 서울 : 대한 교과서, 2001, p. 30

기악이라는 용어는 노래라는 뜻으로, 길고 짧은 가사에 가락을 붙인 음악의 형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전통 가악은 크게 정가(正歌)와 속가(俗歌)로 구분되고 있는데, 정가는 이른바 고상하고 정대한 노래로 가곡, 가사, 시조 등이 이에 포함되고 속가는 통속적인 노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소리, 잡가, 입창, 민요 등이 이에 속한다. 13)

그러나 가악이라 하면 넓은 의미의 성악이라는 개념보다는 정가라는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가곡, 가사, 시조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sup>14)</sup> 본 논문에서는 정가와 속가에 관계없이 전통음악 중에서 가사가 있는 악곡을 일컬어 국악 가창곡이라 하기로 한다. 국악 가창곡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곡, 가사, 시조, 판소리, 단가, 병창, 잡가, 민요, 범패, 무가 등이 있다. 또한 현대의 작곡가들에 의해 창작도니 악곡도 포함된다.

가곡은 소규모의 관현악 반주에 시조시를 노래하는 5장 형식의 성악곡이다.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구성인 시조를 5장으로 구분하여 부르며, 전주 및 후주에 해당하는 대여음과 간주격인 중여음이 있다.

가사는 긴 사설을 일정한 장단에 의해 노래하는 성악곡으로서, 그 감정적인 표현이 자유로운 편이다.<sup>15)</sup>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가사는 모두 12곡이며, 명창인 하규일(河圭一: 1867~1937)과 임기준(林基俊: 1868~1940)에 의하여 전승되었다.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의 사설을 3장 형식으로, 5박이나 8박으로 구성된 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이다. 시조에는 가장 원형이 되는 평시조, 첫소리를 질러내는 지름시조, 사설이 많은 사설시조 등이 있다.

판소리는 소리를 하는 한 사람이 고수(반주자)의 북장단에 흥을 돋우는 소리에 맞추어 긴 이야기를 연출하는 극음악이다. 소리, 아니리, 발림, 추임새 등으로 구성되며, 원래 12마당이 전했으나 현재는 <춘향가>, <홍보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의 5마당이 전해지고 있다.

단가는 판소리를 부르기 전에 목을 풀기 위해 부르는 짧은 노래이다. 판소리에 비해 그 길이가 짧고, 음악은 화평하고 담담한 느낌을 준다.

병창은 한명 또는 여러 명의 연주자가 악기 연주와 함께 노래하는 것이다. 병창에는 대개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경우가 많아 가야금 병창이 가장 대표적이다. 민요나 단가 중에서 한 대목을 부르기도 한다.

13) 서한범, 『전통가악에 나타난 한국인의 미의식』, (서울 : 정신문화 연구원, 1985) p. 43

14) 서한범, 『개정판 국악 통론』, (서울 : 태림출판사, 1997) p. 160

15) 이성천, 『알기 쉬운 국악개론』, (서울 : 도서출판 풍남, 1994) p. 146



잡가는 조선 말기에서 20세기 초에 특히 성행했던 노래의 하나로, 신분이 낮은 기생이나 소리꾼들이 많이 불렀다. 가사, 판소리, 민요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내용과 형식이 매우 다양하다. 지역에 따라 경기잡가와 서도잡가로 구별되고, 경기 잡가는 다시 12잡가<sup>16)</sup>와 휘모리잡가<sup>17)</sup>로 구별된다. 서서 부르는 입창도 잡가에 포함된다.<sup>18)</sup>

민요는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전통적인 소박한 노래를 말한다. 몇 세대를 내려오는 동안 고쳐지고 다듬어져 민족 특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요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기 민요, 남도 민요, 서도 민요, 동부 민요, 제주 민요 등 5개 지역권으로 나뉘며 각각의 지역마다 지방 특유의 음악적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불교음악인 범패는 리듬과 화성이 없는 단성 가락으로 되어있고, 주로 절에서 재를 올릴 때 부르는 불교의 성악이다. 음악적인 형태로 보면 안차비 소리 인 염불, 걸차비 소리 인 훗소리와 짓소리, 그리고 축원하는 화청이나 회심곡으로 구분할 수 있다. <sup>19)</sup>

무악이란 원시 시대부터 전해 오는 각종 무속의식에 쓰이는 음악을 말하며, 가사가 있는 무가는 그 사설 내용에 따라 청신 무가, 본풍이 무가, 놀이 무가로 구분한다. 무가들의 가락 형태는 각 지방마다 지방 특유의 토리를 지니고 있는데, 대개 경기 지방, 남도 지방, 서도 지방, 동부 지방, 제주 지방으로 크게 구분하며, 음계나 가락은 그 지방의 민요와 공통점이 많다.

## 나. 국악 가창용 제재곡 현황

제 7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는 가창영역의 비중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수업 진행의 대부분이 가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만큼 가창이 음악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국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 서양음악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16) 조선 말엽에 생긴 노래로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지역에서 널리 불려졌던 잡가이다.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집장가’, ‘소춘향가’, ‘선유가’, ‘형장가’, ‘평양가’, ‘달거리’, ‘십장가’, ‘출인가’, ‘방물가’ 등이 있으며 집장가와 달거리(세마치장단) 를 제외한 나머지 곡들은 6박자의 도드리 장단으로 되어있다.

17) 서울 지방의 소리꾼 사이에서 발생한 소리로, 빠른 속도로 몰아가는 잡가이다.

18) 이성천, 『알기 쉬운 국악개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1994) p.155

19) 서한범, 『개정판 국악통론』, (서울: 태림 출판사, 1997) p.155

현 교육과정에 입각한 8종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국악 가창곡을 분석하고자 한다. 8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가창곡은 제재곡에서 기악곡을 뺀 가창곡들로 분류되어 진다.

국악 가창곡의 종류와, 가창곡의 종류를 다시 장르별로 분류해 보면 <표 9>, <표 10>와 같다.

<표 9> 8종 음악교과서의 국악 가창곡 분류

출판사	국악 가창곡 종류
공통 필수곡	오돌또기, 새타령, 강강술래, 신고산 타령, 봄이 왔네, 동창이 밝았느냐, 박연폭포, 경북궁 타령, 농부가, 정선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서우젓소리, 수심가, 뱃노래, 상주 모심기소리, 사랑가
가	1. 낙양준 2. 사모곡
나	1. 천안 삼거리 2. 이야홍 타령
다	1. 구아리랑 2. 한강수 타령 3. 신천안 삼거리
라	1. 옹혜야 2. 울산아가씨 3. 범피중류 4.오! 금강산 5. 우락
마	1. 농장이 밝았느냐 2. 우조 초수대엽 3. 임금님의 행차
바	1. 풍구소리 2. 강화시선 뱃노래 3. 어부사시사 4. 태산이 높다하되

사	1. 육자백이 2. 연산홍 3. 긴아리랑 4. 청산별곡 5. 적성가 6. 가시버시사랑
아	1. 꿩지나 칭칭나네 2. 상사도야 3. 풍년놀이 4. 자진방아타령

<표 10> 가창곡 장르별 분류

	민요	가곡	시조	판소리	가사	잡가	당악	취타	고려 가요	국악 가요	합계
가	6						1		1		8
나	8		1							1	10
다	7									1	8
라	7	1		1						1	10
마	9	1	1					1			12
바	7		1	1						1	10
사	5			1					1	1	8
아	8										8
합계	57	2	3	3			1	1	2	5	74

(1) 민요

민요는 교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가사나 곡조가 일정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부르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를 수 있다. 때문에 우리 민요는 그러한 음악의 본질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열린 방법으로 다양하게 지도하여야한다.<sup>20)</sup>

민요란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내려온 전통적인 소박한 노래를 말한다.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는 분명치 않아도 몇 세대를 내려오는 동안 고쳐지고 다듬어져 우리 민족 특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있다.<sup>20)</sup> 민중들의 삶의 모습을 가장 솔직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요인데, 지금은 과거의 노래가 되어버렸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적 뿌리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민요에 대한 발전적인 조사와 연구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우리 민요는 각 지방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비슷한 특징끼리 묶어 5개의 민요 권으로 분류한다. 민요를 지역에 따라 구분하면 경기민요(서울·경기·충청도 일부), 서도민요(평안도·황해도), 남도민요(전라도·충청도 일부), 동부민요(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의 강원도·함경도·경상도), 제주민요로 나누어진다.

<표 11>에서는 8종 교과서의 지역별 민요 분포 현황을 볼 수 있다. 각 교과서별로 살펴보면 필수악곡 및 참고 곡을 나름대로 선별하여 수록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기도 민요에 편중되어 있어 민요의 지역별 문제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악이나 산조, 판소리 같은 음악이 고도의 예술성을 지닌 감상음악이라면, 민요는 특별히 배우거나 수련할 필요가 없이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생활음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지방의 민요를 교과서에서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재곡 선별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표 11> 민요의 지역별 분류

출판사 지역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합계
경기도	3	1	3	1	3	1	1	2	15
전라도	1	1	1	1	2	1	1	2	10
경상도		2		3		1	1	1	8
강원도	1	1	1		2	1	1		7
충청도		1							1
황해도						1			1

20) 국립국악원 국악협의회, 민요 이렇게 가르치면 제맛이나요, 서울 : 민속원, 1998, p.3

21) 서한범, 國樂通論, 서울 : 태림출판사, 2005, p.178

함경도		1	1		1	1		1	5
평안도				1			1		2
제주도	1	1	1	1	1	1	1	1	8
합계	6	8	7	7	9	7	6	7	57

<표 11>을 살펴보면 8종 교과서의 전체 민요곡의 수는 57곡이며, 그 중 경기도 민요는 15곡, 경상도 민요는 8곡, 전라도 민요는 10곡, 강원도 민요는 7곡, 충청도 민요는 1곡, 황해도 민요는 1곡, 함경도 민요는 5곡, 평안도 민요는 2곡, 제주도 민요는 8곡으로 수록되어져 있다.

교과서별로는 ‘가’ 교과서는 경기도 3곡, 전라도 1곡, 강원도 1곡, 제주도 민요 1곡으로 총 6곡의 민요를 수록하고 있으며, ‘나’ 교과서는 황해도와 평안도를 제외하고 8곡을 수록하고 있고, ‘다’ 교과서는 경기도 3곡, 강원도 1곡, 경상도 1곡, 전라도 1곡, 함경도 1곡, 제주도 민요 1곡으로 총 8곡, ‘라’ 교과서는 경기도 1곡, 경상도 3곡, 전라도 1곡, 평안도 1곡, 제주도 민요 1곡으로 총 7곡, ‘마’ 교과서는 경기도 3곡, 강원도 2곡, 전라도 2곡, 함경도 1곡, 제주도 민요 1곡으로 총 9곡, ‘바’ 교과서는 충청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민요를 7곡, ‘사’ 교과서는 경기도 1곡, 경상도 1곡, 강원도 1곡, 전라도 1곡, 평안도 1곡, 제주도 민요 1곡으로 총 6곡, ‘아’ 교과서는 경기도 2곡, 전라도 2곡, 경상도 1곡, 함경도 1곡, 제주도 민요 1곡으로 총 7곡을 수록하고 있다.

현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는 비교적 다양한 민요를 신고 있지만, 충청도 민요와 황해도, 평안도 민요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다음은 토리별 민요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경기민요는 노래의 느낌이 맑고 경쾌하며 말 붙임새가 독특하고 선율의 굴곡이 유연하면서도 장식음이 많다.

남도민요는 소리가 구성지고 극적이며 강렬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고, 창법은 굵은 목을 쓰고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등을 특징으로 한다.

동부민요는 가락의 굴곡이 대체로 심한 편이며, 창법도 씩씩한 느낌을 주는 등, 동부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특색이 음악에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도민요는 대부분이 기악반주를 하지 않는다는 점, 콧소리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 요성(搖聲)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주도 민요는 ‘레’음계를 가장 많이 쓴다는 점에서 서도민요와 유사한 점이 있

지만 선율골격이나 종지 형태는 서도민요와 다르다. 음악적 특징으로 보면 제주도에서 순수하게 발생한 민요들과 육지의 영향을 받은 민요들이 공존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제주도 민요는 서도민요와 유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전문 소리꾼들의 교류가 어려웠기 때문에 통속민요 보다는 토속민요가 더 많이 발달해 온 것으로 여겨진다.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민요를 토리별로 나누어 분류해 보면 <표 12>과 같다.

<표 12> 민요의 토리별 분류

출판사 토리권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합계
경 기	3	2	3	1	3	1	1	2	16
남 도	1	1	1	1	2	1	1	2	10
동 부	1	4	3	3	3	3	1	2	20
서 도				1		1	1		3
제주도	1	1	1	1	1	1	1	1	8
합계	6	8	8	7	9	7	5	7	57

<표 12>을 살펴보면 각도를 경기민요, 남도민요, 동부민요, 서도민요, 제주도 민요로 토리별로 분류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동부민요가 20곡, 경기민요가 16곡, 남도민요가 10곡, 제주도 민요가 8곡, 서도 민요가 3곡 수록되어있다. 이처럼 토리별 분류에서도 동부민요나 경기민요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반면 서도민요의 비중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 별로는 ‘라’, ‘바’, ‘사’ 교과서는 토리별로 골고루 수록하고 있고, ‘가’, ‘나’, ‘다’, ‘마’, ‘아’ 교과서는 서도민요를 뺀 민요들이 수록되어있다.

이러한 지역별 민요의 편중현상은 우리나라의 각 고장별 특유의 가락과 리듬, 그리고 표현법을 통한 맛과 멋을 느낄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서 민요곡을 선정함에 있어 각 고장별로 특징 있는 민요를 고루 수용하고 각 지방별로 그 지방의 민요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 시조 및 가곡

오랫동안 일반사이에 퍼져 전해 오는 시조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가장 원형이 되는 시조는 평시조이고, 여기서 지름시조·사설시조 등으로 변저 나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이는 표준적인 서울 중심의 경제에 대하여 향제(鄕制 : 지방제)로 구분하고, 향제에는 충청도 지방의 내포제(內浦制), 전라도 지방의 완제(完制), 경상도 지방의 영제(嶺制) 등이 있다.

시조의 반주 악기로는 장고·세피리·대금·해금 등을 기본 편성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장고 반주만으로도 부를 수 있고, 장고도 없으면 무릎장단으로도 부를 수 있는 노래이다.<sup>22)</sup>

가곡의 원형은 만대엽(慢大葉)·중대엽(中大葉)·삭대엽(數大葉)이다. 그러나 오늘날 가곡의 연주 형태는 대여음(전주)을 반주의 악기군이 연주하면 부르는 사람은 1·2·3장(시조의 초장·중장에 해당함)을 부른다. 또 다시 악기군만으로 중여음(간주)을 연주하면 4·5장(시조시의 종장)을 부른다. 가곡의 반주 악기들은 거문고·가야금·세피리·대금·해금·단소·장고 등이 편성된다.<sup>23)</sup>

이와 같은 시조와 가곡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3> 와 같다.

우리나라 가악(歌樂)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손꼽히는 것이 시조와 가곡이지만, 이것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 교과서는 ‘마’ 교과서뿐이다. ‘나’, ‘바’ 교과서에는 시조만 1곡, ‘라’ 교과서에는 가곡만 1곡 실려 있으며, ‘가’, ‘다’, ‘사’, ‘아’ 교과서에서는 시조 및 가곡을 한 곡도 다루지 않았다.

22) 서한범, 國樂通論, 서울 : 태림출판사, 2005, p.170

23) 서한범, 國樂通論, 서울 : 태림출판사, 2005, p. 160~161

<표 13> 가창영역 - 시조 및 가곡 수록 현황

출판사	시조 및 가곡
가	
나	*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 허화병 편보
다	
라	* 여창 가곡 “우락” - 서한범 채보
마	*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 5박·8박 장단 * 가곡 “우조 초수대엽” - 장사훈 채보
바	* 시조 “태산이 높다하되” - 양사언 시, 서한범 편곡
사	
아	

### (3) 판소리 (창극)와 단가

판소리는 여러 가지 놀이가 벌어지는 장소, 즉 놀이판에서 불려지는 소리라는 뜻으로, 한 사람이 창(唱)을 하면서 소리(唱)와 아니리(白)와 발림(科)을 섞어 가며 긴 이야기를 연출하는 극음악의 하나로, 한 사람의 고수(鼓手)가 북장단을 쳐서 반주한다.

소리는 일정한 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음정 있는 가락을 의미하고, 아니리는 소리와 소리 사이에 설명 또는 대화식으로 어떠한 장면이나 사실을 말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장단의 반주 없이 자유 리듬으로 한다. 발림이란 소리하면서 몸짓으로 여러 가지 표정을 실감나도록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판소리는 원래 열두 마당이 있었으나,<sup>24)</sup> 지금은 심청가·흥부가·수궁가·춘향가·적벽가의 다섯 마당만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판소리에 쓰이는 장단은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엇모리·엇중모리가 있고, 이들 장단이 약간 느리고 빠른 차이에 따라 여러 변형이 있다.<sup>25)</sup>

이와 같은 판소리와 단가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24) 장끼타령, 변강쇠 타령, 왈자타령 (무숙이 타령), 배비장 (裵裨將)타령, 심청가 (沈淸歌), 흥부가(興夫歌), 수궁가 (水宮歌 : 토끼타령), 춘향가 (春香歌), 적벽가 (赤壁歌 : 화용도), 강릉매화전 (江陵梅花傳), 가짜 신선타령 (숙영낭자전), 옹고집전 (雍固執傳)

25) 서한범, 國樂通論, 서울 : 태림출판사, 2005, pp. 172~173



<표 14>과 같다.

‘가’<sup>26)</sup>, ‘마’ 교과서는 판소리와 단가가 한곡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판소리 부분에 있어서 ‘라’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춘향가만을 다루고 있다.

<표 14> 가창영역 -판소리와 단가 수록 현황

출판사 \ 체제곡의 분류	판 소 리 (창극) 와 단 가
가	
나	* 판소리 춘향가 중 ‘천자뒤풀이’ - 중중모리장단, 김기수 채보, 김소희 창 * 창극 춘향가 중 ‘사랑가’ -중중모리장단, 채보자 미상
다	* 판소리 춘향가 중 ‘적성가’ -진양조 장단, 백대웅 채보 * 단가 : 호남가 -중모리장단, 채보자 미상
라	* 판소리 심청가 중 ‘범피 중류’- 진양조장단, 김기수 채보
마	
바	*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중중모리장단, 김기수 편보 * 판소리 흥보가 중 ‘화초장’ -중중모리장단, 김기수 편보
사	*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중중모리장단
아	* 판소리 춘향가 중 ‘쑥대머리’ - 한글 정간보 수록

#### (4) 창작노래 및 기타 악곡

창작노래는 민요나 정악 기악곡 등의 전통 국악곡의 음악 특성을 새로운 악곡의 형식으로 표현한 곡이어야 한다.

창작노래에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핵심적인 내용을 장단의 특징, 전통음조직, 구조, 가사와 리듬과의 관계의 적절성이 담겨있어야 하며 가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올바른 정서를 육성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변성기를 거쳤거나 겪고 있는 고등학생의 음역 역시 고려 대상이다. 또한 화성의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 성부의 음악으로 구성되어 우리 가락의 독특한 조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sup>27)</sup>

26) (주)두산 출판사인 ‘가’ 교과서에는 잡가와 단가인 사철가, 유산가, 진국명산, 그리고 판소리인 춘향가 중 ‘사랑가’가 감상 곡으로 수록되어 있어 가창영역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27) 문진, 고등학교 국악가창 교육 - 국악교육 체계화 연구 가창편, 서울 : 국립국악원 국악 연구실, 2001,

이와 같은 창작노래 및 기타 악곡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표 15> 가창영역 - 창작노래 및 기타 악곡 수록 현황

출판사	창 작 노 래	기 타 악 곡
가		*사모곡-고려가요, 이성천 곡 *낙양춘 -작곡자 미상
나	* 꽃분네야 -심우성 작사, 채치성 작곡	*음악극 -사랑가 ‘한네의 승천’ 중에서
다	*가시버시 사랑-굿거리 장 단, 금나영작사,이병욱작곡	* 청산별곡 -고려가요, 김기수 편곡
라		
마	*어디로 갈거나 -중모리 장 단, 김영동 작곡	*취타중 임극님의 행차 -권오성 작사, 김기수 편곡 * 경기 잡가 ‘유산가’
바	*어부사시사-자진모리장단, 윤선도 작시, 이병욱 작곡	* 정악곡 : 현악영산회상 중 ‘타 령’ -권오성 작사 편곡
사	*환경음악 : ‘물고기의 노 래’- 휘모리장단, 김영동 작 곡	*정악곡 :현악영산회상 중 ‘타 령’-권오성 작사 , 정간보 수록
아	* 민요풍의 창작곡 : ‘풍년 놀이’- 김영중 작사, 신상춘 작곡	

이 부분은 대부분의 교과서가 비교적 다양한 악곡을 수록하고 있다. 여러 종류의 창작노래와 고려가요, 음악극, 정악곡 (현악영산회상), 취타, 가사, 잡가 등이 골고루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라’ 교과서에는 이 부분이 아예 결여 되어 있고, ‘가’ 교과서에는 창작노래가 수록되지 않았으며, ‘아’교과서에는 기타 악곡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 2. 기악 영역

기악은 음악교과서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악기를 준비하고 주법을 익히며, 악곡을 연주해야 한다는 어려움 때문에 가창과 비교하여 음악수업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지만, 단지 노래 부르기 활동만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형태 보다는 악기 연주활동을 통하여 풍부한 음악적 표현력을 증진시키며, 다양한 미적 체험을 느낄 수 있고, 음악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을 구현하고, 악기 연주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학교 음악 학습의 중요한 활동영역으로 여겨진다.

제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초·중학교를 거쳐 오면서 습득된 악기의 이해와 주법, 독보력의 기본적인 연주 실력을 바탕으로 악곡의 특징에 분위기를 살려 연주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단, 교사들의 재량에 따라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악기와 그 편서를 다양하게 하여 연주 활동을 할 수 있다.

### 가. 국악 기악 제재곡의 내용

<표 16>를 보면 국악 기악 제재곡의 현황을 알 수 있는데, 8종 음악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제재곡을 기악영역별로 분류하였다.

악기 연주법에 있어서 대부분의 교과서가 단소나 소금 제재곡 수록에 국한되어 있어 학생들이 함께 연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아쉬움이 남는다.

#### <표 16> 기악 영역 내용 분류

영역 출판사	기악 영역의 내용 분류
가	1. 단소 연주법 2. 피리 연주법 3. 가야금 연주법 4. 사물놀이

나	1. 장구 연주 방법과 장단 2. 단소 운지법 3. 소금 운지법 4. 가야금 연주법
다	1. 단소 연주법 2. 세마치장단 연주법 3. 장구 연주법 4. 소금 연주법
라	1. 단소 연주법 2. 가야금 연주법
마	1. 단소 연주법 2. 소금 연주법 3. 대금 연주법 4. 향피리 연주법
바	1. 장구의 구조 2. 장구로 장단을 쳐보자 3. 단소 연주하기 4. 소금 연주하기 5. 가야금 연주하기 6. 소리북 연주하기
사	1. 장구 연주하기 2. 소금 연주하기 3. 가야금 연주하기 4. 단소 연주하기
아	1. 소금 운지법 2. 사물놀이 연주 방법

(1) 악기에 의한 분류

각 교과서마다 악기를 이용한 연주법을 수록하고 있는데, <표 16>과 같다. 장구, 단소, 가야금, 대금, 소금, 피리, 사물, 풍물, 소리북 등으로 나누어 각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악기 연주법에 표시하여 보았다.

단소·소금과 같은 관악기 연주법은 모든 교과서가 수록하고 있는데 반하여 가야

금 등의 현악기 연주법은 ‘다’, ‘마’, ‘아’ 교과서가 수록하고 있지 않았다. 학생들이 비교적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악기가 단소이고, 현악기는 학교 자체에 악기가 배치되어있지 않으면 다루어보기가 힘들다는 점 때문에 관악기 위주의 내용 편성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관악기와 현악기를 각각 하나 정도는 다루어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타악기에 대한 연주법 수록도 더 보충되어야 한다. 사물놀이는 학생들이 배우기도 용이하고 우리음악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단순히 장구 등의 악기에 대해 실어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물, 풍물 등은 직접 접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타악기 연주를 통하여 리듬감을 기를 수 있으며, 각 악기의 소리가 함께 울렸을 때의 소리를 들으며 소리의 어울림에 대하여 터득할 수 있게 된다.

<표 17> 기악영역 - 악기별 분류

악기 출판사	장구	단소	가야금	대금	소금	피리	사물	풍물	소리북
가		○	○		○	○	○		
나	○	○	○		○				
다	○	○			○				
라		○	○		○				
마		○		○	○	○			
바	○	○	○		○			○	○
사	○	○	○		○				
아							○		

위의 표에서처럼 기악에서는 장구, 단소, 가야금, 대금, 소금, 피리, 사물, 풍물, 소리북의 악기를 수록하고 있으며, 그 중 장구, 단소, 가야금, 소금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각 교과서별로는 ‘가’ 교과서는 가야금, 피리, 단소, 사물을 수록하고 있고, ‘나’

교과서는 장구, 가야금, 단소, 소금울, ‘다’ 교과서는 장구, 단소, 소금울, ‘라’ 교과서는 가야금, 단소를, ‘마’교과서는 단소, 대금, 소금, 피리틀, ‘바’교과서는 장구, 가야금, 단소, 소금, 풍물, 소리북을, ‘사’교과서는 장구, 단소, 가야금, 소금울, ‘아’ 교과서는 소금, 사물을 수록하고 있다.

### 3. 창작 영역

제 7차 교유과정의 음악과 활동 영역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중에서 창작 활동은 가장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누구나 음악적 창의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잠재된 음악적 창의력을 계발하고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작영역이 강조되어야 한다.

수업에서 습득한 음악 개념을 활용하고,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학생 자신의 방식으로 악곡을 표현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음악적 창의력은 계발되고 신장될 수 있다.

특히 학교 수업에서의 즉흥적이고 창의적 표현활동이나 작곡 활동은 창작 활동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만든 곡은 반드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하는 등, 학생 스스로 그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음악 개념을 쉽게 습득하고 이해하게 된다. 고등학교에서는 리듬이나 가락의 음악요소에 의하기보다는 완성된 음악을 만들어 즉흥 연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음악이 가지는 본질적인 특징인 리듬이나 화성, 빠르기, 셈여림, 음질, 음색 등이 이해되어 나타나는 활동이 되도록 하고 있다.

전통가락의 경우에는 가락에 어울리는 장단 반주를 만들어보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반주 형태의 이해를 전제로 곡에 어울리는 것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특히 창작 활동의 경우 몇 명씩 그룹으로 협동하여 곡을 만들어 본다면, 효율성과 흥미유발은 물론, 협동심까지 발휘하게 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로 다양한 소리를 탐구하고 듣게 되어 음악적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악곡의 특징에 맞게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곡을 만들기는 간단한 이야기 줄거리에 따라 악곡의 분위기와 특징에 맞는 음색의 악기나 목소리를 선택하여 곡을 만들게 하는 것으로 개인 활동보다는 그룹 활동으로 전개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악곡의 특징에 맞는 적절한 악기의 목소리를 선택하여 창의적으로 만들도록 함으

로써 음질이나 음색 등의 좀 더 질적으로 발전된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 가. 국악 창작 영역의 내용

현재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의 창작 영역의 내용을 <표 17> 과 같이 분류하였다.

창작 영역은 4개의 활동 영역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 ‘다’, ‘아’ 교과서에서는 창작내용 요소가 단 하나에 그치고 있고, ‘마’ 교과서에서는 창작내용 요소가 없었다.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창작 영역에 대한 제재곡 수록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다.

<표 18> 창작 영역 내용 분류

악기 출판사	변형 장단	장단 만들기	가락 만들기	가사 짓기	즉흥곡 만들기	기타
가				○		
나	○	○	○			
다			○			○ (우리고장 민요찾기)
라	○			○		○ (변주)
마						
바	○		○			
사			○		○	
아				○		

창작 영역은 7종 교과서만이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가’ 와 ‘아’ 교과서는 가사 짓기만이 수록되어 있으며, ‘나’ 교과서는 장단 만들기 와 장단의 변형, 가락 만들기, 가사 짓기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고, ‘다’ 교과서는 가락 만들기의 내용만이, ‘라’ 교과서는 변형장단 만들기 와 가사 짓기의 내용이, ‘바’ 교과서는 변형장단 만들기 와 가락 만들기, ‘사’ 교과서는 가락 만들기 와 즉흥곡 만들기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위 교과서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사’ 교과서에서만 완성된 곡을 만들어 즉흥곡을 연주하도록 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사’ 교과서 외에 나머지 교과서에는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현 교육과정의 방향과는 어긋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악 교육에서의 창의적인 표현을 위해서는 우리음악의 기본 개념인 장단과 음계에 대한 학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민속선율을 주제로 하는 화성적 음악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대중음악의 가사를 국악 음계로 작곡해 보고, 노래를 장단으로 치면서 부르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적인 표현을 이끌어 내는 것도 필요하겠다.

국악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학생들에게 국악의 음계나, 변형장단 만들기, 또는 장단을 이용한 가락 짓기 등의 창작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학업성취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악의 기초적인 5음 음계를 중심으로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학생들의 흥미를 잃지 않게 하고 창작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는 옳은 방법이다.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창의적인 창작 활동으로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4. 감상 영역

음악을 듣는 것은 음악 수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다양한 음악을 들음으로써 음악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이는 감상 영역에서만 만 아니라 가창, 기악, 창작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꼭 필요한 활동이다.

고든은 “ 그저 음악을 단순히 듣는다는 것은 음악을 지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경지로 유도해 낼 수 없지만, 음악을 이해하면서 들으면 음악적 즐거움을 조장 할 수 있다.”<sup>28)</sup> 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음악적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는 음악을 이해하여야 한다.’ 라는 전제조건을 갖게 한다. 또한 음악 감상능력은 동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므로 음악을 듣는 힘을 개발하고, 훈련에 의하여 감상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것이 음악성을 기르는 데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음악성이란 음악의 아름다움을 향수 할 수 있는 능력이다.”<sup>29)</sup> 라는 머셀의 주장처럼 감상을 통해서 음악을 이해할 수 있고 아름다움에 감동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음악적 표현

28) Gordon Edwin, The Psychology of Music Teaching.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 Hall, 1971, p. 115

29) Mursell. J. L. & Glenn, M, 한국음악교재연구회 역, 『음악교육심리학』 (세광출판사,1988), p. 13



도 가능해야 한다. 인간은 노래하고 연주하며 창작하고 듣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능력을 지녔는데 이 능력은 교육을 통해 개발하여 정신을 순화시킴으로서, 조화롭고 운치 있는 생활은 물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30)</sup>

## 가. 국악 감상 영역의 내용

고등학교에서는 잡가, 창극, 뮤지컬, 다성 음악 등의 성악곡과 실내악곡, 무용곡, 창작 국악곡 등의 기악곡을 감상하게 하는데 이와 같은 여러 양식과 장르의 음악은 특정한 시대나 문화권의 음악을 초월하여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감상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학습활동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풍부한 사고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 중에서 국악 감상 교육은 고등학교의 감상 영역 중 그 실시가 용이하면서도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국악 감상학습의 지도가 활발치 못한 이유는 지도 자료가 부족한데다 음악 교사들의 국악에 대한 상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책의 내용이 사전적 설명에만 그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용 감상교재를 개발하고 시청각 자료를 대중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악은 우리의 음악이다. 우리의 음악을 모르고 외국음악을 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다. 요즘의 청소년들은 ‘국악’ 하면 지루하고 따분한 음악 또는 낯선 음악이다는 느낌을 갖는다. 어린 시절부터 갖가지 매스컴을 통해 서양의 음악에 더 익숙해져 있고 국악기 보다는 피아노나 바이올린 등 서양악기를 배우는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음악’하면 우리의 전통음악인 국악을 떠올리지 않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음악을 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감상 학습에서 부터라고 생각한다. 서양음악과 상이한 우리 고유의 음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함으로써 민족적인 정기와 슬기를 배우는 데에 국악 감상 교육의 진정한 목표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다양한 전통음악을 많이 감상하도록 하여 풍부한 정서와 조화로운 인격형성을 기르게 하고, 민족 문화의 계승을 위해 감상 부분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30) 정희란, “음악 감상 영역 지도 내용에 관한 연구”, 청주교대석사학위 논문, 2002

이에 따라 현행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의 감상 영역의 제재 곡을 다시 장르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 감상영역 내용 분류

영역 출판사	감상 영역 내용 분류
가	1. 거문고 독주곡 “ 일출” 2. 대바람 소리 3. 수제천 4. 춘향가 5. 수심가 (역음 수심가) 6. 태평가 (잡가와 단가) 7. 산조, 시나위 8. 만선/ 신뎃놀이 9. 만수산 드렁쇠 10. 현악 영산회상 “천년만세”
나	1. 경기입창 “자진 산타령” 2. 우리나라 극음악과 봉산탈춤 3. 판소리 4. 풍물놀이 5. 수심가 6. 가곡, 가사, 시조 7. 전통음악과 전통무용 8. 창작국악 “송광복” 9. 휘모리 잡가 “육칠월 흐린 날” 10. 17현 가야금과 실내악을 위한 시계탑 11. 대취타, 취타, 영산회상, 수제천 12. 시나위, 산조

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판소리</li> <li>2. 가야금 산조, 시나위</li> <li>3. 범패</li> <li>4. 전통성악곡</li> <li>5. 뮤지컬, 창극</li> </ol>
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식음악 “희문”</li> <li>2. 청성곡</li> <li>3. 대바람소리</li> <li>4. 옷다리풍물</li> </ol>
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제천, 범패</li> <li>2. 종묘제례악</li> <li>3. 문묘제례악</li> <li>4. 현악영산회상</li> <li>5. “침향무”</li> <li>6. “대바람소리”</li> </ol>
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곡, 가사, 시조</li> <li>2. 경기 12작가</li> <li>3. 영산회상</li> <li>4. 정선아리랑 주제에 의한 변주곡</li> <li>5. 가야금 삼중주를 위한 세 개의 변주곡 “상주모심기 소리”</li> <li>6. 시선 뱃노래를 위한 국악 관현악곡</li> <li>7. 판소리와 창극</li> <li>8. 봉산탈춤</li> <li>9. 종묘제례악과 문묘제례악</li> <li>10. 범패와 진도 무속노래</li> </ol>

사	1. 잡가 “보림” 2. 가사 “어부사” 3. 범패 4. 수제천 5. 우조시조 “월정명” 6. 영산회상 7. 가곡 “이삭대엽” 8. 가야금병창 9. 가야금 산조 협주곡
아	1. 가곡 2. 잡가 3. 수제천 4. 시나위 5. 가야금 독주곡 “비단길” 6. 판소리 7. 해금 독주곡 “적념” 8. 우리나라의 악기 9. 풍물놀이와 사물놀이

<표 20> 감상영역 장르별 내용 분류 - 기악곡

영역 출판사	기 악 곡							
	독주	병주	줄풍류	실내악	대풍류	관현악	농악	취타
가	산조		천년만세	시나위	수제천			
나	산조		영산회상	시나위	수제천	문묘·종묘 제례악, 평조회상	풍물놀이 사물놀이	대취타 , 취타
다	산조			시나위				
라					희문 청성곡		웃다리 풍물	

마					수제천, 보허자	문묘· 종묘 제례악		
바			영산회상		영산회상	평조회상,문 묘· 종묘 제례악		
사	가야금 병창		영산회상		수제천			
아					수제천		웃다리 풍물, 사물놀이	

<표 21> 감상영역 장르별 내용분류 - 성악곡· 창작곡

영역 출판사	성악곡							창작곡
	판소리	민요	잡가	가악	범패	민속극	단가	
가	춘향가	수심가, 억음수 심가태 평가	유산가	태평가			진국명 산	일출 대바람소리 만선 신뱃놀이 만수산드령취,한
나	춘향가 홍보가 심청가 수궁가 수궁가 적벽가	수심가	육칠월 흐린날		범패		자진산 타령	송광복 17현 가야금과 실내악을 위한 시계탑

다	춘향가	유산가 놀량,보 림	우조초 수대엽, 동창이 밝았느 나, 백구사		범패			비단길 적념
라								대바람소리
마	심청가				범패			침향무 대바람소리
바	심청가		유산가 무속노 래	태평가 백구사 시조	범패	봉산탈 춤		강원도 아라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상주모심기소리, 시선뱃노래를 위한 관현악곡
사			벼슬공 보림		범패			산조협주곡
아	춘향가		유산가	언락				

위의 <표 20>와 <표 21>은 감상곡을 장르별로 나누어 도표화 한 것이다. 크게 기악곡, 성악곡, 창작곡으로 나누고 다시 기악곡은 독주, 병주, 줄풍류, 실내악, 대풍류, 관현악, 농악, 취타로 구분하고 성악곡은 판소리, 민요, 잡가, 가악, 범패, 민속극, 단가로 구분하여 감상곡을 분석하였다.

줄풍류는 ‘나’, ‘마’, ‘바’, ‘사’의 교과서에서 영산회상을, ‘가’교과서에서 천년만세를 수록하고 있으며, 실내악은 시나위가 ‘가’, ‘나’, ‘다’, ‘아’, 4종 교과서에서 수록하고 있다. 독주곡으로는 ‘가’, ‘나’, ‘다’교과서에서 문묘·종묘제례악, ‘나’교과서에서 수제천을 감상곡으로 수록하고 있고, ‘라’교과서는 휘문고 청성곡을, ‘마’교과서는 보허자, ‘바’교과서는 영산회상을 감상곡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농악은 ‘나’교과서에서 풍물놀이와 사물놀이, ‘라’교과서에서 웃다리 풍물, ‘아’교과서는 웃다리 풍물과 사물놀이를 수록하고 있다.

여기서 볼 때 8종 교과서에서의 기악곡의 독주곡으로 산조, 줄풍류는 영산회상, 실내악은 시나위, 대풍류는 수제천, 농악은 웃다리 풍물과 사물놀이를 수록하고 있다.

여기서 볼 때 8종 교과서에서의 기악곡의 독주곡으로는 산조, 줄풍류는 영산회

상, 실내악은 시나위, 대풍류는 수제천, 농악은 웃다리 풍물과 사물놀이가 가장 많이 수록되어진 감상곡이다.

성악곡은 ‘가’, ‘나’, ‘다’, ‘마’, ‘바’, ‘아’교과서에서 판소리를 수록하고 있으며, 그 중 ‘가’, ‘나’, ‘다’, ‘아’교과서에서는 춘향가를, ‘나’교과서는 판소리 다섯 마당 모두를 수록하고 있다. 단가는 ‘가’, ‘나’교과서에서 공통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민요는 수심가를 ‘가’, ‘나’교과서에서 공통으로 수록하고 있고, ‘가’교과서는 엮음 수심가와 태평가를 수록하고 있다.

민속극으로는 ‘나’, ‘바’교과서에서 봉산탈춤을 수록하고 있으며, 잡가는 ‘가’, ‘나’, ‘다’, ‘바’, ‘사’, ‘아’교과서 중 ‘가’, ‘다’, ‘바’, ‘아’교과서가 유산가를 수록하고 있고, 놀량과 보렴은 ‘다’교과서에서 수록하고 있다. 범패는 ‘나’, ‘다’, ‘바’, ‘사’교과서에서, 가악은 ‘가’, ‘바’교과서에서 수록하고 있다. 범패는 ‘나’, ‘다’, ‘마’, ‘바’, ‘사’교과서에서, 가악은 ‘가’, ‘바’교과서에서 태평가, ‘다’교과서는 우주 초수대엽, 동창이 밝았느냐, 백구사, ‘바’교과서는 태평가, 백구사, 시조, ‘아’교과서는 언락을 감상곡으로 수록하고 있다. 창작곡으로는 가야금 독주곡인 침향무와 대금 독주곡인 대바람 소리가 각각 ‘가’, ‘라’, ‘마’교과서에서 수록되어 있으며, ‘가’교과서에서는 일출, 만선, 신뱃놀이, 만수산드렁칠힌, ‘나’교과서는 송광복, 17현 가야금과 실내악을 위한 시계탑, ‘다’교과서는 비단길, 적념, ‘마’교과서는 침향무, 대바람 소리, 강원도 아라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바’교과서는 상주모심기소리, 시선뱃노래를 위한 관현악곡, ‘사’교과서는 산조 현주곡을 수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8종 교과서의 성악곡 중 판소리는 춘향가, 잡가는 유산가, 민속극은 봉산탈춤, 가사로는 태평가가 가장 많이 수록되어진 감상곡이다. 교과서 별로 보면 ‘나’교과서는 민속악기와 목소리, 그리고 실내악과 여러 형태의 감상지도에 있어서 자료가 잘 수록되어 있는 반면 ‘사’교과서는 창작곡에 있어 가야금 협주곡에 만 너무 취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창작곡을 감상하는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다’와 ‘라’교과서에 비해 연주 형태와 악곡을 이해하기에는 감상곡의 수가 부족함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국악 감상곡은 필수악곡이 많기는 하나 공통악곡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특히 국악을 대표할만한 필수악곡 중 영산회상이나 수제천, 청성자진한잎 등은 고등학교에서 반드시 공통적으로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음악 감상 수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감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악과 관계되는 감상학습을 함으로써 국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고, 학생 스스로의 음악회 등의 참여 등을 통해서 음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제 4절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1. 문제점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에서 국악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기 위하여 동일 곡을 제외한 국악 제재곡의 수를 살펴본 결과, 총 166곡으로 그 중 외국가곡이 75곡(45%), 한국가곡이 43곡(26%), 국악곡은 48곡(29%)으로 외국가곡과 한국가곡을 서양음악으로 묶어 분류하여 비교해보면 국악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각 교과서별로는 국악 제재곡의 비율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마’ 교과서에 비해 제재곡의 비율이 22%로 가장 낮게 나타난 ‘다’ 교과서처럼 8종 교과서마다 국악 제재곡의 비율이 일관성 없이 다르게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가. 가창 영역

제재곡 중 기악곡을 뺀 가창곡만으로 분석하였다.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에서의 가창곡은 총 74곡으로 그 중 민요가 57곡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민요의 지역별 분류에서는 경기도와 전라도 지역의 민요에만 편중되어 있었으며, 민요의 토리별 분류에서는 동부민요에만 치우쳐져 있어 서도 민요가 극히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별 민요의 편중현상은 우리나라의 각 고장별 특유의 가락과 리듬, 그리고 표현법을 통한 맛과 멋을 느낄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양한 악곡’을 강조하고 있는 현 교육과정의 내용과는 어긋남을 알 수 있고, 민요의 장단 또한 초·중학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기악 영역

현 교육과정에서는 초·중학교를 거쳐 오면서 습득된 악기의 이해와 주법, 독보



력의 기본적인 연주 실력을 바탕으로 악곡의 특징에 분위기를 살려 연주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8종 교과서에서는 가야금, 단소, 소금, 장구, 대금, 향피리, 소리북, 사물의 악기 중 가야금, 단소, 소금, 장구의 악기에만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악기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각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악기들의 명칭이나 연주방법, 부호, 연습곡 등의 설명으로는 실제 악기 연주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 교과서에 수록되어있는 악기들은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국악의 구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고 교사 역시 국악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쉽게 연주가 가능한 단소나 장구에 한정되어 연주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 다. 창작 영역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리듬이나 가락의 음악요소에 의하기보다는 완성된 음악을 만들어 즉흥 연주하도록 하고 있지만 8종 교과서 중 ‘사’ 교과서만이 즉흥곡 만들기를 수록하고 있었으며, 현 교과서에서의 창작 영역내용의 수록이 타 영역보다 미흡함을 알 수 있어 교과서에 수록된 창작 영역 내용은 현 교육과정과는 어긋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라. 감상 영역

민속 악기나 목소리와와의 조화를 이해하고 실내악 등의 연주형태를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와와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는 현 교육과정에 비해 8종 교과서의 국악 감상곡은 필수악곡이 많기는 하지만 국악을 대표할만한 필수 악곡 중 영산회상이나 수제천, 청성자진한잎 등은 고등학교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곡임에도 불구하고 각 교과서마다 일관성 없이 수록되어져 있었으며, 창작곡은 동일 곡을 제외한 17곡으로 많이 수록되어져 있지만 그 중 ‘대바람 소리’만이 3종 교과서에 수록되어져 있는 점 외에는 각 교과서마다 각양각색의 창작곡들이 수록되어져 있어 창작곡 역시 일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교과서별로 수록되어 있는 국악 감상곡의 곡목 수 또한 ‘라’, ‘마’ 교과서의 경우 6곡만이 수록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국악 감상의 기회가 많이 부족한 반면, ‘나’ 교과서에서는 12곡이 수록되어져 있어 교과서별로도 곡 수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막상 국악 감상학습

의 지도가 활발치 못한 이유는 교과서의 내용이 사전적 설명에만 그친 것,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외에 음악교사들의 국악에 대한 상식과 이해가 부족한 점이다.

## 2. 개선방안

제 7차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개정의 중점에서부터 전통음악을 강조하여 제 6차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비해 전통음악의 비중이 약 10% 정도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우리의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실제적인 음악적 경험과 이를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에 있어 자료의 미흡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은 국악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서양 음악에 비해 국악곡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국악곡이 부족하다고 해서 단순히 그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양음악과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하고, 교과서의 제재곡 수록에 있어 일관성 있고 정확한 기준설정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 가. 가창 영역

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요곡을 선정함에 있어 각 고장별로 특징 있는 민요를 고루 수용하고 각 지방별로 그 지방의 민요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다양한 악곡’을 강조하고 있는 현 교육과정의 내용에 의한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민요뿐만이 아닌 가곡과 판소리, 시조, 가사, 잡가, 고려가요, 국악가요 등 다양한 음악의 수록과 장단에 있어서도 변형장단을 골고루 수록하여 보다 풍부한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나. 기악 영역

기악학습은 지식위주의 학습보다는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실제 음악 중심의 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악기의 이해와 실제 연주에 필요한 자료가 더욱 자세하게 수록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자료를 통해 다양한 악기들의 차이점과

느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다. 창작 영역**

현 교육과정에 맞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국악교육에 있어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즉흥적이며, 자기의 생각을 가락 짓기 또는 리듬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창의성을 생각한 다양한 교육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 **라. 감상 영역**

감상영역은 학생들의 전통음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그 실시가 용이하면서도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감상되어야 할 국악 감상곡의 내용이 현 교과서의 사전적 설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일관성 있는 곡목 수의 정립과 다양하고 상세한 곡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곡 수 또한 더 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용 감상교재를 개발하고 시청각 자료를 대중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하겠다.

### **제 4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에 입각한 고등학교 8종 음악 교과서의 국악 부분을 분석한 것으로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악 내용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각 교과서 별 비교·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에서 국악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고자 각 교과서 별로 제재곡을 분석한 결과 최고 44%에서 최저 22%까지 교과서마다 국악 제재곡의 비율을 달리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었고,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제재곡을 외국가곡과 한국가곡을 서양음악으로 묶어 분류했을 때, 국악곡의 수가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영역별로 분류하여 국악내용이 각 교과서마다 어떻게 수록되어 있는지 활

동영역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먼저 가창영역에서는 8종 교과서에서 총75곡이 수록되었고, 그 중 민요가58곡을 차지하여 ‘다양한 악곡’을 중요시하고 있는 현 교육과정과는 거리가 있다. 민요 중에서도 경기 민요가 16곡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서도 민요와 동부민요의 수록 수는 너무 적어서 우리나라의 각 고장별 특유의 가락과 리듬, 그리고 표현법을 통한 맛과 멋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

셋째, 기악영역은 각 교과서마다 다양한 악기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나 장구와 단소 등 몇몇 악기에 편중되어 있었다. 현악기 연주곡은 그나마 가야금 한 악기에 국한 되어있고, 사물과 같은 타악기 연주곡은 많은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학교 재량과 교사들의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단소나, 장구 등 구비하기 편리하고, 쉽게 연주가 가능한 악기에 한정되어 연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창작영역은 즉흥적으로 연주하도록 강조하고 있지만 8종 교과서 중 1종 교과서만이 ‘즉흥곡 만들기’를 수록하고 있어 교육과정과 어긋나고 있으며, 곡수에 있어서도 타 영역에 비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감상영역에서는 총 100곡 중에 민요가 50%를 차지하고 있어 가창 부분에서도 나타났던 민요의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8종 교과서에서 수록하고 있는 국악 감상곡의 종류가 각 교과서마다 달라서 교과서를 선택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국악을 대표할 만한 필수악곡 중 영산회상이나 수채천, 청성자진한잎 등의 곡은 고등학교에서 반드시 공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인데, 많은 교과서에서 이러한 곡들을 다루지 않고 있다. 교과서의 내용이 사전적 설명에만 그치고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처럼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의 국악에 관한 내용은 정확한 기준제시가 없어 각 교과서마다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국악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편집과 검정에 보다 정확성과 신중을 기해야 하겠고, 각 교과서마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연계성 있는 국악 내용을 수록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1. 문진. 『고등학교 국악가창 교육』 - 국악교육 체계화 연구 가창편, 서울 : 국립 국악원 국악 연구실, 2001.
2. 서한범. 『국악통론』. 서울 : 태림출판사, 2005.
3. 윤명원. 『국악교육논총』. 서울 : 국악춘추사, 2004.
4. 이상규. “20세기 이후 국악교육의 전통과 계승”, 『한국음악연구』 제34집. 서울 : 한국국악학회, 2003.
5. 이성재. 『재미있는 국악 길라잡이』. 서울 : 서울미디어, 1994.
6. 이성천. 『나도 국악을 가르칠 수 있다.』. 서울 : 풍남, 1991.
7. 이성천. 『한국의 음악교육을 진단한다』. 서울 : 풍남, 1991.
8. 이성천. “국악교육 40년의 회고와 전망”, 『국악교육 40년의 회고와 전망 (자료집)』. 서울 : 국립국악 고등학교, 1995.
9.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0.
12. 이홍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2.
13. 최중민. 『국악의 새로운 물결』. 서울: 행림출판사, 1989.

### 2. 외국서적

Gordon Edwin. *The Psychology of Music Teaching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 Hall, 1971.

### 3. 학위논문

1. 고옥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8종 분석연구” -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 중 국악 가창분야 중심으로- , 추계 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2. 김명주.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국악내용 분석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3. 김홍일.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가창영역 분석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4. 박지은.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악교육내용 분석 연구”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중심으로 -,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5. 박현준.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1학년 8종 음악교과서 분석 연구” - 감상영역을 중심으로 -,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6. 신고운. “제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악 가창 제재곡에 관한 고찰”,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7. 주신영.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분석 연구” - 감상 제재곡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8. 최정화.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영역 분석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4. 기타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 대한 교과서, 2001.

한국국악교육학회, 『나는 국악을 이렇게 가르친다』 - 국악교육 제 9집, 서울 : 한국국악교육학회, 1996.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김정은	학 번	20058077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김정은	한문: 金淨恩	영문: Kim Jung Eun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상무버들 107동 1903호				
연락처	010-9659-2277 * E-MAIL : natodori@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교육 내용 분석연구 -7차 교육과정 중점으로- 영문 :An Analytic Study on the Area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n the Current High School Music Textbooks - Focused on the 7th curriculum -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년 2월 일

저작자: (서명 또는 인)